

궁중약고추장, 학교기업지원사업 평가 “우수기업” 선정



Buy 전북에 선정, 전라북도 대표상품으로 육성 ISO 22000인증, 로하스인증, 전통식품품질 인증

우리대학 학교기업인 ‘궁중약고추장(단장 신정규)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2010년도학교기업지원사업연차평가’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어 10%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

학교기업지원사업연차평가는 학교기업에 대해 2년간 지원 후 중간평가를 통해 추가 3년 지원 여부 결정(2+3년)하는 것으로 지난해 선정된 53개 학교기업은 대학/전문대학 2억 5천만원, 전문계고교 1억 2천만원을 5년간 지원받고, 직원인건비, 현장실습비, 시설기자재구입비, 운영비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궁중약고추장은 ISO 22000인증, 로하스

인증, 전통식품 품질 인증을 받았으며,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 수상, '2010 대한민국 식품환경발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제2기 Buy 전북(전라북도 우수상품)으로 선정되어 제품의 우수성이 입증되었으며, 전라북도 대표 상품으로 육성되고 있다.

특히 실무책임자인 추정임연구원(대한민국 신지식인 제10-30호)은 국민에게 감동주는 대한민국신지식인 ‘특허분야’에서 높은 점수와 사회활동 및 경력과 능력을 인정받아 신지식인 선정자 중에서도 “제15회 한국신지식인협회장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히브고추장 및 이를 이용한 굴비장 아찌’는 2008년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서 우수개발상품으로 선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제품을 개발한 추정임연구원은 이 분야 최고의 명인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궁중약고추장 사업단에서는 2010년 학교기업지원사업 연차평가 “우수기업” 선정에 보답하기 위하여 개교기념 및 스타센터 개관식에 맞춰 5월 2일부터 14일까지 전 품목 25% 할인 행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지·면·안·내■

- 2~4 News
2011 X-ctrc 문화기술 세미나 연속진행 대학평의원 11명 위촉 태권도학과 우수성적 중국유학생 간담회 총학생회 출범식 김재훈학우 국제영화제초청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전시식
- 5 Opinion
- 6 Culture
기자수첩, 문화산책
- 7 Opinion
교수칼럼, 미니인터뷰, 사설
- 8~9 Jump On
21C 아는 것만큼 보인다
- 10 People
은희천 예체능대학장
- 11 Campus Life
학교기관 소개, 동아리소개 게릴라인터뷰, 스도쿠
- 12~13 Mission
로고스, 진리의샘, 겨자씨 선교소식, 기독교 투고
- 14 중국어 신문
- 15 The JJ Globe

전주대신문 창간 1965년 5월 15일

우 560-75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200 전주대학교

발행인 이남식/편집인 양병선/편집국장 인쇄 제일출판/편집국 220-2442/운영실 220-2441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신 구속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제 곧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찢기시고 피 흘리심을 기억하여 이제 후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일터요 또한 배움터인 전주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양육함과 같게 하시고, 공부하는 이들은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게 하시며,

경영하는 이들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게 하셔서 2011년에는 우리 전주대학교가 더 멋진 세상을 꿈꾸는 더 멋진 대학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우리 전주대학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독교정신에 기초한 지성·인성·영성의 전인교육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며, 학문과 교육의 실용화를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교육만족도 최우수 대학이 되게 하시고, 교육과정, 학문연구, 대학경영,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의 모든 과정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갖춘 탁월한 기독교대학이 되게 하시

기를 원합니다.

대학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셔서 서로를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캠퍼스에는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캠퍼스를 찾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주대학교에 허락하신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주대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계획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획처장 황인수 교수>

2011 X-ctrc 문화기술 세미나 연속진행



▲X-ctrc 문화기술 세미나를 통해 문화콘텐츠기술 연구에 힘쓰고자 한다.

스마트공간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에서 진행되는 문화기술세미나가 학생들의 관심속에 연속진행되고 있다.

지난 7일 스마트공간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에서 제3회 2011 X-ctrc 문화기술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유동환

(안동대학교 교수)가 강의로 진행됐다. 보존에만 중점을 두던 전통문화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이해하고 첨단기술과의 연계방안 모색 하는데 목적이 있다.

스마트공간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장 한동승)은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열어, 우리대학 학

생들이 현대적 예술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문화예술의 최전선- 디지털 문화예술의 대표적 3가지 속성'이란 주제로 제4회 2011 X-ctrc 문화기술세미나가 14일 오후 3시 30분에 본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강사로 나선 유원준 엘리스온대표는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문화와 예술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어떠한 지점에서 그 변화와 모습을 찾을 수 있는지 고찰할 계획이다.

2011 X-ctrc 문화기술 세미나는 3월24일부터 6월9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열린다. 문화기술에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 추후 세미나 일정은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박영희(☎220-2945).

/박선화 기자

제3기 대학평의원 11명 위촉



대학평의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했다.

우리대학은 지난달 29일 '제3기 대학평의원회 위촉식'을 가졌으며, 2013년 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위촉자는 교수평의원 조정훈 교수(교양학부), 윤진영 교수(사회과학대학), 김상진 교수(공과대학), 안종석 교수(경영대학), 김정호 교수

(경영대학), 직원 평의원 송독열 실장(입학지원실), 박현수 지부장(노조지부장), 학생 평의원 박솔 학생(경영대학/총학생회장), 외부평의원 정오(홀리클럽), 임정엽(총동문회장), 안호영(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공동대표) 등이다.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로 추천되어 선발되었다. 대학평의원회는 본교 운영의 민중성, 투명성, 합리성을 제고하며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박선화 기자

'총장동정'



이남식 총장은 4월 8일(금) 오전 9시 청와대에서 열린 제4회 국가브

랜드위원회 보고회의에서 국가브 랜드위원으로 위촉되어 2013년까지 활동하게 된다.

또한 4월 7일(목) 밤 12시 10분부터 100분간 <MBC 100분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대학등록금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하여 토론을 벌였다.

-The OMEGA Global Alliance-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과 MOU 체결



우리대학과 NASA OMEGA Project 실행위원장인 토마스 그림 박사가 오메가 코스메틱 제품 공동 개발에 힘쓰기로 했다.

OMEGA Project 실행위원장인 토마스 그림 박사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협약 내용은 화장품에 유용한 물질인 '오메가'의 활용 가치를 높여 3개 기관이 협력하여 오메가 코스메틱 제품 연구와 개발을 하기로 했다.

토마스 그림 박사는 클린턴재단에서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클린턴 정부의 기후 에너지 정책을 홍보하던 팀장이다. 현재 미국에 오메가연합 코리아를 설립하여, 향후 장학금을 주는 등 사회공헌에 헌신할 예정이다.

/박선화 기자

우리대학은 지난달 31일 스타센터 회의실에서 미국 The OMEGA Global Alliance(NASA 법인기관/Dr. Kathryn A.) (세계

기후변화종합상황실/ CEO 박영숙)과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의 초청으로 NASA

'교수동정'



박승환교수(디자인학부)는 4월24일부터 5월5일까지 전북 예술회관과 한옥마을 등 전주 일대에서

'가족의 위안'을 주제로 열리는 제4회 전주포토편제(www.jpf.co.kr)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전주포토편제(www.jpf.co.kr)는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국제사진문화교류전으로 국내외 역량 있는 사진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체 교수회의

1. 일 시 : 2011년 4월 13일(수) 16:50
2. 장 소 : 교수연구동 801호
3. 안 건 : 국제한식조리학교 추진 여부에 관한 건
4. 순 서 <사회 : 이방식 교무처장>
가. 기 도 : 장선철 선교지원처장
나. 총장 입장표명 다. 질의응답

EM **美生** **毛**

되살아나는 EM미생물 발효생물

1 Shampoo **EM미생물 발효샴푸 (골드)**

두피 청상화 유효성분 처방
주성분 : 비오틴, 니코틴산아미드, D-판테놀
이연피리페트렌, 알로 및 알파아미노산
천연유래의 마이오딘 세정성분
프로그레스에서 얻어진 마이오딘 세정성분
두피 보호력 유지에 도움

단오수가 모발과 두피에 작용!!

2 Tonic **EM미생물 발효토닉 (골드)**

각종 유해환경과 스트레스에서 모발을 건강하게
실리실산에 의한 두피 피지 제거 및 케어 효과
연골에 의한 두피 탄력성 부여 - 두피를 상쾌하게
단오수 함유로 탈모방지 및 모발성장 촉진
세모의 기능 저하에 의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탈모를 방지
모근과 모유관에서 합력성분을 촉진시켜 노화를 방지

대황, 한천초, 허수오, 맥지, 석류, 홍삼, 당귀

[판매원] 에버미라클 : 전북 전주시 원산구 삼천동 37-339
EverMiracle Co.,Ltd www.evermiracle.com / www.emkorea.com / 소비자 상담실 : 1588-3043
EM제품은 (주)EM의 유통망 (1577-0175)과 (주)은라원의 (1644-0101)을 통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EM으로 탈모 고민 끝!

김재훈 학우, 2011 전주국제영화제 초청

‘완주에서 만나다’ 감독

영화영상전공에 재학 중인 김재훈 감독(4년/06학번) 및 학생 스태프들이 제작한『완주에서 만나다』가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 전국 영화팬들 앞에 선보인다. 지난해 11월 완주군을 배경으로 제작되어 전국적인 화제를 모은 영화로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펼쳐지는 제12회 전주국제영화제 '로컬시네마 전주(Local Cinema Jeonju)'에 공식 초청되었다.

작품을 감독한 김재훈 학우는 영화에 얽힌 이야기를 "연기와 연출을 병행하는 열정적인 감독으로 살고 싶다"는 말로 시작했다.

그는 "감독으로서 첫 작품이었는데 주변에서 많은 도움이 있었다. 물론 감독으로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스태프, 학과 선배, 교수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 속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정받게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열정으로 시작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시행착오가 많았다. 평균 20시간을 활동하며 원치 않는 불화도 생겼었지만 촬영을 위해 강행군을 걸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다'라고 했다. 스태프와 배우와의 오해가 풀리고, 마침내 '완주에서 만나다'가 완성됐다.



▲ 김재훈 감독이 단편영화 "완주에서 만나다"를 촬영중이다.

그는 "이 영화는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며 사랑하는 내용이다. 원래 '공포/스릴러'를 좋아하지만 순수한 남녀 사이를 나타낼 수 있어서 더욱 뜻깊었던 것 같다."라며 감독으로서 특유한 색깔을 보여주었다.

류승룡 감독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그는 '배우+연출'의 욕심이 있다고 말했다. 류감독은 영화를 배운 사람이 아니었고 열정만 가지고 뛰어 들었던 사람이다.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자신의 길에 몰입했던 사람이기에 다양한 부분에서 배운다고 했다.

그는 "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만족하는 영화를 찍고 싶다. 잘하는 것보다 함께 만들어가는 영화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관객과 공감하는 감독이자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광룡 기자

문화관광대학

제1회 달빛 Festival로 한마음 되다

문화관광대학(학장 송광인)은 지난 1일 오후 2시부터 창조관 일대에서 '제1회 달빛 Festival'을 열었다.

이번 Festival은 문화관광대학 구성원의 화합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전공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문광족구대회', '보물찾기', '문화관광 4행시 경연대회', '돌+아이 콘테스트', '찾아라 나의 반쪽', '최고의 Sexy Queen 선발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문화관광대 학생회장 이지수 학우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문화관광대학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또한 학생



▲ 문화관광대학 제1회 달빛 Festival로 화합의 장이 되었다.

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였고, 건강한 대학생 활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화 기자



▲ 패션 분야의 진로를 탐색하고 비전과 취업에 대한 특강이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열렸다.

패션산업전공 '사람을 믿는다' 특강

지난 5일 패션산업전공 학우들을 위해 더 휴컴퍼니(대표이사 권성재)에서 "패션기업 성공 경영 노하우 '사람을 믿는다'"라는 특강이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열렸다.

문화관광대학 1학년 및 패션산업전공 학우들로 총 190명이 수강했다. 본 행사는 패션 분야의 진로를 탐색하고 비전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패션산업의

비전과 취업 준비에 대한 정보에 대한 특강이었다.

특강을 들었던 과대표 이근우 학우(1)는 "특강을 하시는 분이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쉴틈 없이 일하면서 수석 졸업을 하셨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 지금 내 모습이 창피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권희망 기자

간호학과 제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봉사정신 본받아



▲ 간호학과 학우들이 나이팅게일 선서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간호학과학우 19명이 지난 7일 오후 2시에 JJ 리사이트홀 예술관에서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했다. 선서식은 3학년 학우들이 임상실습을 나가기전,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봉사정신을 되새기며 쫓붙과 함께 사람들 앞에서 선서를 통해 마음을 다지는 의식이다. 또한 1,2,3학년 학우들이 모두 참석

했고, 1,2학년 학우들이 축가를 불렀다.

선서식에 참가한 이다은(2)학우는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통해 임상에 나가기전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희망 기자

진로가이드

- MOS Master 자격증반 접수(2차)
- 멘토링 프로그램
- 취업가이드 배부
- 직무 인, 적성 검사
- 중국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직장체험 프로그램

생애개발지원실 (스타센터 235호)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학생회관 207호)

기사제보
220-2442

외식산업학과, 직접만든 빵으로 이웃돕기

지난달 22~24일까지 외식산업학과 학우들이 직접 빵을 만들어 판 수익금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는 곳에 지원을 했다.

외식산업학과 학우들은 전날 밤에 직접 빵을 만들어 학생회관 2층과 지역혁신관에서 판매를 했다. 2007년부터 매년 베이커리 빵을 판매했고, 목적은 KT&G와 연결된 삼성보육원에 봉사활동을 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었다. 첫째날은 머핀, 둘째날은 마들렌, 마지막날에는 마늘빵을 만들어 학우들에게 팔았다. 학회장 박원용학우는 "처음으로 학회장을 맡아 베이커리 판매라는 큰 행사를 하면서



매년 눈으로 보는 것과 달리 직접 해보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같이 하면서 우리 과가 단합을 하고,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내가 직접 만든 빵을 다른 과 학우들이 먹고 불우한 이웃돕기의 지원을 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했다.

/권희망 기자

김재훈 학우, 2011 전주국제영화제 초청

‘완주에서 만나다’ 감독

영화영상전공에 재학 중인 김재훈 감독(4년/06학번) 및 학생 스태프들이 제작한『완주에서 만나다』가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 전국 영화팬들 앞에 선보인다. 지난해 11월 완주군을 배경으로 제작되어 전국적인 화제를 모은 영화로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펼쳐지는 제12회 전주국제영화제 '로컬시네마 전주(Local Cinema Jeonju)'에 공식 초청되었다.

작품을 감독한 김재훈 학우는 영화에 얽힌 이야기를 "연기와 연출을 병행하는 열정적인 감독으로 살고 싶다"는 말로 시작했다.

그는 "감독으로서 첫 작품이었는데 주변에서 많은 도움이 있었다. 물론 감독으로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스태프, 학과 선배, 교수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 속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정받게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열정으로 시작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시행착오가 많았다. 평균 20시간을 활동하며 원치 않는 불화도 생겼었지만 촬영을 위해 강행군을 걸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다'라고 했다. 스태프와 배우와의 오해가 풀리고, 마침내 '완주에서 만나다'가 완성됐다.



▲ 김재훈 감독이 단편영화 "완주에서 만나다"를 촬영중이다.

그는 "이 영화는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며 사랑하는 내용이다. 원래 '공포/스릴러'를 좋아하지만 순수한 남녀 사이를 나타낼 수 있어서 더욱 뜻깊었던 것 같다."라며 감독으로서 특유한 색깔을 보여주었다.

류승룡 감독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그는 '배우+연출'의 욕심이 있다고 말했다. 류감독은 영화를 배운 사람이 아니었고 열정만 가지고 뛰어 들었던 사람이다.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자신의 길에 몰입했던 사람이기에 다양한 부분에서 배운다고 했다.

그는 "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만족하는 영화를 찍고 싶다. 잘하는 것보다 함께 만들어가는 영화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관객과 공감하는 감독이자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광룡 기자

문화관광대학 제1회 달빛 Festival로 한마음 되다

문화관광대학(학장 송광인)은 지난 1일 오후 2시부터 창조관 일대에서 '제1회 달빛 Festival'을 열었다.

이번 Festival은 문화관광대학 구성원의 화합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전공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문광족구대회', '보물찾기', '문화관광 4행시 경연대회', '돌+아이 콘테스트', '찾아라 나의 반쪽', '최고의 Sexy Queen 선발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문화관광대 학생회장 이지수 학우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문화관광대학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또한 학생



▲ 문화관광대학 제1회 달빛 Festival로 화합의 장이 되었다.

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였고, 건강한 대학생 활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화 기자



▲ 패션 분야의 진로를 탐색하고 비전과 취업에 대한 특강이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열렸다.

패션산업전공 '사람을 믿는다' 특강

지난 5일 패션산업전공 학우들을 위해 더 휴컴퍼니(대표이사 권성재)에서 "패션기업 성공 경영 노하우 '사람을 믿는다'"라는 특강이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열렸다.

문화관광대학 1학년 및 패션산업전공 학우들로 총 190명이 수강했다. 본 행사는 패션 분야의 진로를 탐색하고 비전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패션산업의

비전과 취업 준비에 대한 정보에 대한 특강이었다.

특강을 들었던 과대표 이근우 학우(1)는 "특강을 하시는 분이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쉽없이 일하면서 수석 졸업을 하셨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 지금 내 모습이 창피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권희망 기자

간호학과 제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봉사정신 본받아



▲ 간호학과 학우들이 나이팅게일 선서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간호학과학우 19명이 지난 7일 오후 2시에 JJ 리사이트홀 예술관에서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했다. 선서식은 3학년 학우들이 임상실습을 나가기전,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봉사정신을 되새기며 쫓붙과 함께 사람들 앞에서 선서를 통해 마음을 다지는 의식이다. 또한 1,2,3학년 학우들이 모두 참석

했고, 1,2학년 학우들이 축가를 불렀다.

선서식에 참가한 이다은(2)학우는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통해 임상에 나가기전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하는지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권희망 기자

진로가이드

- MOS Master 자격증반 접수(2차)
- 멘토링 프로그램
- 취업가이드 배부
- 직무 인, 적성 검사
- 중국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직장체험 프로그램

생애개발지원실 (스타센터 235호)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학생회관 207호)

기사제보
220-2442

외식산업학과, 직접만든 빵으로 이웃돕기

지난달 22~24일까지 외식산업학과 학우들이 직접 빵을 만들어 판 수익금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는 곳에 지원을 했다.

외식산업학과 학우들은 전날 밤에 직접 빵을 만들어 학생회관 2층과 지역혁신관에서 판매를 했다. 2007년부터 매년 베이커리 빵을 판매했고, 목적은 KT&G와 연결된 삼성보육원에 봉사활동을 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었다. 첫째날은 머핀, 둘째날은 마들렌, 마지막날에는 마늘빵을 만들어 학우들에게 팔았다. 학회장 박원용학우는 "처음으로 학회장을 맡아 베이커리 판매라는 큰 행사를 하면서



매년 눈으로 보는 것과 달리 직접해보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같이 하면서 우리 과가 단합을 하고,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내가 직접 만든 빵을 다른 과 학우들이 먹고 불우한 이웃돕기의 지원을 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했다.

/권희망 기자

독자특고

Beautiful Mind



이관희 (상담학 3)

2년여의 군복무를 마친 후 다시 찾은 학교, 변화된 많은 풍경들과 비주일적 가치를 한 층 격상시킨 캠퍼스를 보며 감탄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느꼈다.

더불어 이 시대가 양산해 낸 패션 아이콘의 확대로 우리 대학생들 또한 외모를 가꾸는 솜씨에 있어 상향 평준화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었다.

그 어느 때보다 모양새가 참 중요해진 사회인 것 같다. 언제부턴가 배보다 배꼽이 큰 리모델링 열풍이 부는가하면 빛을 내서라도 짓는 주요 행정 기관이나 대형교회, 방송국이나 학교시설 등 외적 가치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것 같다.

프랑스의 극작가 장 아누이가 말

한 것처럼 '당신이 공짜로 얻는 것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지불한 것이다' 라는 말이 어찌면 이 시대를 향한 일침은 아니었을까?

젊음을 담보로 한 학자금 대출이나 휴학을 통한 생계노동, 그만둘 수 없는 아르바이트를 해나가야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장학제도 확충이나 일정수량만큼의 무료 프린트 혹은 통학버스 무료화 등 실질적인 복지혜택일지도 모른다. 학교는 학교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때 보다 본질적인 상호간의 만족이 이뤄지리라 본다.

비단 학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20대에 여성에게 '미모는 인생의 마스터키'라는 말이 마치 십계명의 한 계명처럼 맹신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본다. 정작 많은 남자들은 외모가 아닌 인상을, 가슴이 아닌 심장의 크기를, 화려함이 아닌 부드러움을 지닌 여자에게 호감을 느낀다. 아니 결국에는 그런 여자를 찾는다. 외면에 대한 투자만큼이나 우리가 가진 내면의 에너지로 누구도 쉬이 범접할 수 없는 내공가득한 전주 대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을 살다보면 우리가 투자했던 초,중,고,대 6 3 3 4 학제기간이 결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때도 온다. 뿐만 아니라 좋은 학교의 시설이 좋은 학교를 보장해주진 않으며,

빠어난 미모가 뛰어난 업무능력까지 책임져 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건 기적이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출근 준비에 평균 40분, 저녁 외출 준비엔 1시간 12분을 쓴다고 한다. 그 시간 여러분의 내면에는 얼마나 투자했는가? 우리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처럼 외적 성장이나 외면과 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닌, 내적 성장과 Beautiful Mind가 필요한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격려하며, 칭찬하는 Beautiful Mind말이다. 이러한 Beautiful Mind를 지니기 위해선 우리의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이처럼 아름다운 계절에 Beautiful Mind를 만들기 위해, 지난 겨울내내 장롱속에 처박혀 있던 옷을 꺼내 거울 앞에 비춰보기전에, 책꽂이에 오랫동안 처박혀 있던 책을 꺼내 먼지를 털어내고 화사한 봄 햇볕을 받고 있는 봄 꽃 나무아래서 펼쳐보는 것은 어떨까?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이 타고 온 버스가 전주대에 서 내렸다고 종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리지 않으면 다시 출발점이 된다.

마지막으로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경쟁을 해서 최종 우승한 뛰어난 유전자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자칼럼

희망찬 대학생활을 위해!!



권희망

대학에 입학한지 1년이 지나 '신입생'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진 동시에 재학생이 되었다. 나는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져있는 '대학생활을 잘 보내고 있는가?' 라는 광고 종이를 보고나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나의 지난 1년의 대학생활은 고등학교 4학년이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공강 시간이 별로 없었다. 남들은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의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다고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등학생처럼 교수님께서 내주신 과제나 공부만 하는 수동적인 삶을 살았다.

소위 대학생활이란, 시간이 많고, 주변에서 참견을 하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자유분방한 삶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활만큼은 내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한다. 물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유와 책임의 상관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한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지, 전공을 선택했더라도 어떠한 길을 가고 싶은지 등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대학생활이다. 나의 인생의 목표를 찾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대학생활이라고 할만큼, 요즘 학우들은 주변의 상황만 보고 목표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 자아실현의 첫단계인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부터 중요하다.

또한 내 삶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여행 등 자신이 다양한 경험을 겪은 것을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다. '여성비즈니스 스킬'이라는 교양수업에서 취업특강을 들을 때 '스펙의 시대는 지나가고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자'는 강사님의 말씀과 함께 '사람을 많이 접하고 만나서 나의 생각과 시각을 넓혀야 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우리대학의 간판인 '전주대신문사'에 들어와 기사를 쓰고, 사람을 만나면서 사회와 인생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고 있다. 이런 경험 또한 대학생활만의 특혜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장점은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맘껏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학 도서관 같은 곳에 가서 내가 정한 전공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 또한 21세기를 이끌어갈 지식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 권희망 기자

독자특고

청춘 그리고 당신



최수린 (사회복지학 3)

아직도 지난겨울 방학을 회상 할 때면 가슴이 뛰고 설레 인다. 이제부터 내가 보냈던 지난겨울을 찬란했던 청춘의 이야기를 그대와 나누고자 한다. 지난학기 여느 날과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며 학교 게시판을 바라보았다. 어느 기업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청년해외봉사단 포스터를 본 순간 나는 앞뒤 망설임 없이 이걸 나를 위한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었다. 50:1의 경쟁률을 뚫고 결국 합격을 하여 인도 항비행기 표를 얻게 되었다. 만약 나 자신이 다른 잘난 대학생들과 비교하였더라면 난 아마 탈락 되었을 것이다.

턱 없이 부족한 스펙과 뭐하나 내세울 실력 없는 지방대생이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 내 자신이 그 누구보다 가슴 뛰는 청춘임을 믿기에 망설임 없이 지원을 한 것이다. 늘 항상 꿈을 꾸고 실패를 경험하여도 다시 벌떡 일어 설 수 있는 젊음..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뤄 낸 결과였다. 나와 비슷한 꿈을 가진 청춘들과 한 팀을 이루며 소통을 하였고 눈 색과 얼굴색이 다른 사람들과 또한 마음을 나누었다. 해외봉사를 준비하며 마치는 순간 모든 과정이 나의 시야와 생각의

폭을 더욱 넓게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어 주었다.

지금 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 더 큰 꿈을 바라보며 바쁜 나날의 청춘의 삶을 보내고 있다. 이제는 나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그대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청춘은 지금 어떤 빛을 내고 있는가?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함으로 청춘의 빛을 잃어 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아님 변하지 않는 현실에 낙담하여 쓰러져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함께 청춘불패라는 말처럼 절대 현실이라는 벽 앞에 안주하거가 쓰러져 지지 말자 청춘은 절대 지지 않는다.

늘 새로운 것을 생각하며 도전을 하는 나의 청춘은 40대 50대 나이가 먹더라도 늘 찬란할 것이다. 나의 청춘이 이러하듯 당신의 청춘 또한 찬란한 빛을 내며 살아 숨쉬길 기도한다.

기자/수/첩

안전하게 걷고싶다, 캠퍼스에서... 무단횡단, 무단주차 곳곳 위험



최근에 우리 학교의 건물들을 보면서 '정말 공부하기 좋은 곳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도이다. 새로운 건물들이 생겨 학생들을 위한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인도는 보행자를 배려하고 있지 않다. 불편함을 느낀 곳은 예술관과 천장관의 사이에 있는 인도이다. 그 인도는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하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시멘트 구조물까지 있다. 남자인 내가 운동화를 신고 가기도 힘든데, 높은 구두를 신는 여학생에게는 발목이 접질리는 등 걸어가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인도는 내가 전주대에 입학했던 2년 전에도 이랬다.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스타타워에서 올라오다보면 우리는 예술관이나 천장관을 가기위해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알고 있을까? 아마 모르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무단횡단을 하는 이유는 스타타워에서 예술관을 가는 길과 천장관을 가는 길, 학생회관 앞 로타리를 지나 길을 건너야하는 곳에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도로가 넓지 않기 때문에 차가 오지 않으면 건널 수 있다. 하지만 횡단보도가 있어야 한다. 횡단보도를 만들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김문희(사회복지3) 학우는 "굽을 신고 스타 홈에서 학생회관 갈 때 보도블럭이 고르지 않아 불편하다. 그리고 밤 늦게 평화관에서 공부하고 스타홈을 가는 길에 전등이 꺼져있는데 밤길이 무섭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학생회관에서 평화관을 가다보면 인도가 없기 때문에 차와 사람이 서로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그곳은 사람이 다니는 길과 차가 다니는 길 이 나누어 있지 않을뿐더러 넓지도 않다. 게다가 차들이 주차를 하여서 길이 더욱 좁게 느껴진다. 이 길을 지나는 보행자와 차는 너무 아슬아슬하고, 이 길을 가다보면 길 가운데 움푹 패인 곳이 규칙적으로 있다. 또한 비포장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곳에서 날리는 흙먼지로 인해 보행자가 인상을 찌푸리게 된다.

신선영(문헌정보3) 학우는 "비포장 되어 있는 곳을 장애우를 위해 포장을 하고, 평화관 앞에 있는 요철을 제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행자와 운전자 서로의 안전이 위협받는 이곳은 인도를 만들거나 차량의 소통을 막는 등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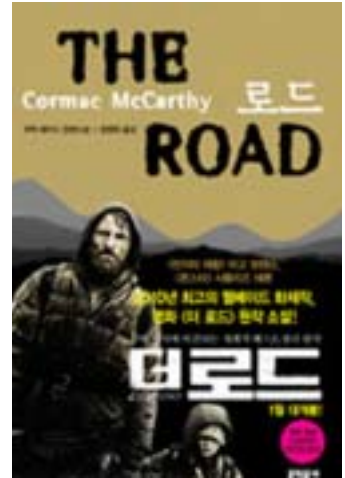
우리학교가 보행자를 생각해주고 배려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이 개선됨으로써 걷고 싶고, 안전한 대학이 되었으면 한다.

/이대중 기자



■ 문화산책 · 책

허전한 마음 한구석 희망이라는 끈.



이번 호 문화 산책에서 소개할 책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저자로 국내에 잘 알려진 코맥 매카시의 '로드 (THE ROAD)'이다. 2009년 영화로도 제작된 <로드>의 세계는 지옥 그 자체이다. 대재앙 이후의 지구 배경으로 길을 떠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그린 이 책은 대재앙의 원인은 나오지 않지만, 오직 남자와 소년은 살기 위해 길을 걷는다.

여기서 필자는 책 안에서의 지구멸망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다. 대재앙이후 살아남은 아버지와 아들의 부성애도 아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암흑의 세상만을 봐온 아들이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지금껏 해온 일들 중에 가장 용기를 낸 일이 무엇이었냐고 묻는다. 아버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듯 그는 삶 자체에 대해 회의적이다. 살아야 할 이유란 게 있는 것 인지, 그는 인간이 '굳이' 생존을 유지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 그가 이렇게 회의적인 인간이 된 동기로는 대재앙을, 그리고 부인의 자살과도 같은 가출을 떠올릴 수 있다. 그는 자살에 대해 생각한다.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미 예전에 자신을 향해 총을 쏘았을 것이다.

아빠가 죽은 다음날 왜 낯선 남자가 다가온다. 그동안 해온 방법이라면 총을 먼저 겨누고 의심부터 해야 한다. 이 아저씨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선택은 둘 중 하나다. 혼자 가느냐 따라가느냐. 하지만 아빠의 방법과는 달리 아들은 선인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다. 결국 이 아저씨를 믿는 방법을 선택한다.

슬프게도 이 '대재앙 이후'를 다룬 소설 속의 세계는 지금 여기와 무척 닮아 있다. 폐허로 변해버린 세상,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아버지가 어른이 된 이후 줄곧 살아왔던 바로 그 세계다. 의심과 부조리가 팽배해질 때로 팽배해진 사회에서 아들과 같은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다. 주위 곳곳에서 많은 아픔과 갈등, 의심, 역경을 지켜보며 희망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전유정 수습기자

※ 원고모집 ※

- 부문 : 독자투고(수필, 시, 제언, 편지 등)
- 일시 : 수시접수(jjnews@jj.ac.kr)
- 문의 : 전주대 신문사(220-2441)

**동아리 회원
太 모집!!!**

신입생 환영!
(여자는 더 환영!!)

연락처 : xxx-xxxx

xx동아리 활동? 거절하려고 하는데 거기 여자들만요?

그럼요! 물론여러! 여자 중심에 오세요~

xx동아리 활동? 거절하려고 하는데 거기 여자들만요?

그럼요! 물론여러! 여자 중심에 오세요~

남자는 여자찾고, 여자도 여자만 찾는 동아리 모집.....

남자 재학생,복학생에게도 관심을 주세요.

-Hoo

교수칼럼

청춘이 아프거든....



이 숙 교수
(국어국문학과)

다시 봄이다. 메말라 있던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면서 가지마다 붉은 기운이 돌더니 가지 끝이 이내 도톰해진다. 조그맣고 단단한 저 멍울이 곧 색색의 꽃잎과 푸른 잎을 틈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다. 희망의 느낌은 늘 그렇게 벅차다. 하지만 울봄의 길목에는 우울한 소식이 봄보다 먼저 와 있었다. 일본에 몰아친 지진과 쓰나미 재앙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미물이었는지, 과학이 일구어낸 문명의 힘이란 자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면서, 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없이 허탈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자연재해보다도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었던 소식은 대전의 모대학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잇달아 목숨을 끊는다는 소식이었다. 그들의 죽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그들이 일류대의 학생이어서가 아니다. 그들을 압박했던 스트레스가 인생의 전부 아니었으며, 그 고통은 그

들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왜 깨닫지 못했을까 하는 마음에서다.

인생을 사노라면 누구나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그 좌절을 딛고 나왔을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또 다른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반복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는 굽은 마디가 자라나고, 웅만한 바람은 버티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회복탄력성 지수(RQ: Resilience Quotient)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여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회복탄력성 지수란 좌절의 상황을 극복하고 회복되는 정도를 수치로 분석한 것인데, 회복탄력에 작용하는 요인으로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낙관성, 원인분석력, 공감 능력, 자기 효능감, 적극적 도전성 등의 일곱 가지를 꼽았다.

첫째, 감정통제력은 압박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둘째, 충동통제력은 미래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현재의 욕구나 충동을 참아 낼 수 있는 인내력을 뜻한다.

셋째, 낙관성이란 주어진 상황이 언젠가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넷째, 원인분석력은 자신이 처한 문제에 대해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내는

능력이다.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그 일이 왜 하필 자기에게 일어났는지 불평하며 분노하는 것은 원인분석력이 부족한 경우이다.

다섯째, 공감능력이란 다른 사람의 심리나 감정 상태를 잘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알아채는 능력이 높을수록 웅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여섯째,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다. 자기효능감은 자신과 세상의 관계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느냐,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도전성이란 익숙한 일상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한계 너머에 있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마음이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면 회복탄력성의 지수를 극대화시키도록 하라.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일은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게 될 일시적인 일이고, 지금보다는 좋은 상황으로 변할 것이라고 믿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라. 이처럼 회복탄력성을 높이려고 노력할 때, 자기효능감이 더불어 높아지고 행복은 어느덧 여러분 곁에 봄처럼 성큼 다가와 있을 것이다.

사설

지금 순수한 사랑을 할 때이다

3월11일 오후 2시46분에 발생한 규모 9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 한 달을 맞았다. 4월7일 현재 사망자는 1만2690명, 행방불명은 1만4736명, 이재민은 17만7000여명에 이른다. 피해액은 일본 정부 추산 최대 25조엔(약 336조원)으로 고베(神戸)대지진의 피해액 10조엔의 두 배를 넘는다. 하지만 이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넣지 않은 것으로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등이 지난달 중순 '일본 돕기'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10일 오전 현재까지 500억원에 가까운 국민 성금을 모았다 한다. 그런데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를 공개하자 이러한 일본을 왜 우리가 도와야 하느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충북의 모 군에서는 지진피해 돕기 모금활동 중단과 함께 모금액을 환불해 주거나 독도 지킴이 성금으로 전환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우리사회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순수한 사랑이다. 십자가에 나타난 용서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는 원수들에 대한 분노나 증오나 저주는 자리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순수한 사랑을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일본을 우리가 사랑 할 때이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조건없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미니인터뷰

YLC 기획팀장 구주는 학우를 만나다.



“도전한 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경험”

- 기획팀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전국 엠티 콘텐츠를 짜고, 전라지부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나 취업 설명회 등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또 한달에 한 두 번씩 각 지부가 모두 모여 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ppt나 많은 자료들을 준비한다.

- 기획팀을 하면서 느낀점은?

얼마나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내가 나름대로 많은 활동을 하기에 느끼는 점은 나와 팀원들이 밤낮으로 공들여 만든 프로그램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내가 원하던 방향으로 잘 따라와 주었을 때 많은 즐거움과 보람을 느낀다.

- 활동을 하면서의 장점은?

매 주말마다 각 지부가 모여 한 주제로 토론을 한다.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고,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는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생각을 넓히게 되었다. 또한 발표를 하는 활동을 통해서 소극적이었던 성격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처음부터 스피치를 바라고 했던 활동이 아

니었기에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많은 보람을 느낀다.

-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과 전공을 살려 회계, 재무팀으로 지원하여 재무담당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YLC 기획팀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며, 체험했었다. 그것들을 바탕으로 어느 곳에 취업을 하게 되도록 기획팀으로 지원하여 나의 경험을 살리겠다.

- 우리 학우들에게 YLC를 소개한다면?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토론할 수 있는 장이다. 또한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원한다면 YLC가 적격이다. YLC를 통해 나의 가능성을 알게 되었고, 삶을 살아갈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들을 알게 되었다. 우리 학우들도 내가 체험했던 경험과 그것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깨달음을 알아 갔으면 좋겠다.

/전유정, 박지은 수습기자

한 강연 중 '전북인은 도전하려 하지 않는다' 고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는 구주는 학우(회계세무 전공 4)

우물 안 개구리처럼 제한된 구역에서의 하루를 벗어나, 경제 학술 동아리에 참여하며 전라지부 기획팀장이 되기까지의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 YLC(Young Leaders' Club)을 알게 된 경로는 무엇인가?

그 전부터 대외활동이 많은 캠프에 참여하면서 경제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것이 많았다.

그러던 중에 3학년 2학기가 되어 반복되는 내태한 학교생활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인터넷으로 알게 되었다.

매일 매일 감사하는 마음

절대 올 것 같지 않던 봄이 올해도 어김없이 왔다. 봄을 시샘하던 추위도 어쩔 수 없이 물러가고 이젠 천장별 곳곳엔 봄 꽃이 만발했다. 구 정문 입구에서 학생회관까지 이어지는 길은 노란 개나리로 물들었고 진리관과 백마관 후면엔 벚꽃이 활짝피어 그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올려대는 첨잔인들을 만나곤 한다.

이러한 아름다운 계절에 우울한 소식이 전해진다. 이웃 대전의 모대학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잇달아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다. 심지어 교수까지 자살했다는 것이다. 베르테르 효과라며 그 대학의 징벌적 등록금제도와 교수들도 실적 위주의 시스템으로 인해 자살로 내몰렸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상대적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를 이슈화하기 전 잠시 우리 대학 캠퍼스 주위를 거닐어 보자. 먼저 환한 햇살을 받으며 이른 아침부터 화사한 꽃들이 우릴 반겨준다. 개나리, 철쭉, 벚꽃이 우릴 반겨준다. 사랑과 감사와 격려와 축복을 전하는 기도와 찬양소리가 이른 아침부터 캠퍼스 곳곳에 울려 퍼진다. 강의실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를 반겨준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천주인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전주대학교의 구성원이 된 우리 모두는 이처럼 큰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생각하며 매일 매일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 천주인 모두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 21세기 아는 것만큼 보인다
/노아 홍수의 지질학적 증거 : 석탄

석탄은 노아 홍수의 명백한 기념물, 성경의 신뢰성에 대한 증거



이재만
(한대대 객원교수, 창조과학선교회 부회장)

■ 진화론의 석탄형성이론 - 습지모델

그 동안 동일과정설적 지질학자들(uniformitarian geologists)이 내세웠던 석탄 형성의 모델은 '습지모델'이다. 잔잔한 습지에서 오랫동안 나무가 쌓이고 쌓여서 석탄이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진화론은 석탄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의 진화론적 발생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석탄의 형성에 수백만년이 걸렸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석탄의 모든 증거들은 습지환경과는 반대되는 것들이다.

■ 석탄 - 나무껍데기

지구상에 엄청난 양의 식물 화석으로서 검고 가벼운 에너지원이 바로 석탄이다. 규모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석탄은 모든 나라에서 발견된다. 그 동안 에너지원으로 상당량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는 아직도 많은 양의 석탄이 남아 있다.

석탄은 한 마디로 탄화된 나무다. 그런 면에서 마치 숲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에 노출된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산화되어 재로 변하지만 탄화되어 숲같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석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먼저 고려할 점은 숲을 만들때와 같이 공기가 차단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석탄은 나무 자체나 나뭇가지라기 보다는 대부분 나무 껍데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석탄층 가운데 나무 자체나 나뭇가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나무 껍데기다.

■ 매우 두꺼운 석탄층

진화론에 따르면, 과거에 살았던 식물들의 느린 축적과 변성으로 석탄층들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매우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석탄층들의 어떤 것들은 토양(soil)의 혼입 없이 석탄 구성 식물들이 매우 두터운 층으로 쌓여서 광대한 지역에 걸쳐 발견되기 때문이다. 어떤 석탄은 그 두께가 60m (200피트)나 되는데, 이것은 기존의 생성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두꺼운 토양이 늪지에 쌓일 수 있었는가? 매우 정확한 지질학적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즉 그 늪지는 천천히 가라앉아야 하고, 정확히 같은 속도로 식물들이 축적되어야만 한다. 만약 너무 빨리 가라앉으면, 식물들은 물에 잠겨 성장이 멈추어버렸을 것이다. 만약 너무 천천히 가라앉았다면, 유기체 잔해물들은 물위로 떠올라 썩어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정확한 지질학적 조건들은 수천, 수만년동안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질학적으로, 두꺼운 칼탄층이 늪지에 축적되었다는 생각은 극도로 터무니없는 것이다.

■ 다지층 화석들

다지층 화석 나무(polystrate trees, 수직으로 선채로 화석화되었거나 석탄화 된 나무)들의 존재는 빠른 석탄화 과정을 가리키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다지층 화석 나무들 중 하나는 호주의 캐더린 힐 베이(Katherine Hill Bay)에서 발견되어진다. 이들 화석화된 나무들은 여러 퇴적지층들을 통하여 3.6m 이상으로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진화론에 따르면 여러 다른 퇴적층들은 퇴적되는데 수십만년이 걸렸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나무들은 침전물이 오랜 세월을 걸쳐 퇴적되기 이전에 분해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보다 이 나무들은 발생했음에도 틀림없는 대격변적 빠른 매몰에 대한 증거들이기 때문이다.

■ 뚜렷한 화산재층

식물이 습지에서 자라서 축적되었다면 석탄 아래에 있어야 하는 토양(soil)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대신 석탄은 두꺼운 점토층에 놓여 있고, 그 점토층과 석탄층 사이에는 칼날과 같은 점층면(knife edge)이 있을 뿐이다. 이 고령토(kaolin clay)는 최고급 도기류에 사용될 수도 있을 정도로 순도가 매우 높다. 그리고 그 점토층에는 어떤 식물의 뿌리도 통과한 흔적이 없다. 그리고 그 석탄층을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무수히 많은 뚜렷한 화산재층이 있다. 만약 식물들이 늪지에서 자랐다면, 이러한 뚜렷한 화산재층은 거기에 없었을 것이다. 화산이 폭발한 다음, 화산재 성분들은 늪지 식물에 의해 흩으로 바뀌어져 없어져야 한다. 또한, 석탄을 이루는 대부분의 나무 껍데기들은 습지가 아닌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만 자라는 식물의 것이다.

■ 해양환경과 산악환경

석탄은 습지 같은 민물 환경이 아니라 바다 환경을 말해 준다. 왜냐하면 석탄은 다른 화석들과 함께 발견되는데 대부분이 물고기, 연체동물, 그리고 조개같은 무척추동물들의 화석으로서 모두 바다에서 서식하는 생물들이다. 또한, 석탄에서 발견되는 식물들은 오늘날 늪지에서 자라는 종들이 아니다. 그것은 주로 강우량이 많은 산악 지대에서 발견되는 종류이다. 석탄에 있는 여러 식물 종들과 가장 잘 맞는 식물 종들은 뉴기니아(New Guinea)섬 서쪽에 있는 해발고도 1200-2200 m 정도의 산에 분포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식물 또한 호주, 말레이시아, 뉴칼레도니아, 그리고 뉴질랜드에 있는 산에 있다. 그 석탄을 구성하고 있는 식물 종들은 늪지나 범람원(floodplain) 지대에서 자라지 않는 것들이

다. 한편 석탄은 가끔 커다란 바위들과 함께 발견되는데, 이는 수력학적으로 볼 때도 잔잔한 물에서 이동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어떤 것은 무게가 70kg 이상인 바위도 있다.

■ 거대한 석탄층

무엇보다도 습지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은 석탄층의 규모가 수백 km²를 넘는다는 사실이다. 지금 지구상 어디에도 이렇게 광범위한 습지는 없다. 거대한 석탄 분지(Huge coal basin) 석탄층은 점토, 모래, 그리고 현무암질 용암 등으로 된 두꺼운 지층들 안에 있는데, 그것은 함께 700 m에 이르는 암벽층을 이루고 있으며, 이것이 라트로브 계곡의 석탄 함유량 추정치로 알려져 있다. 이는 소위 '분지(basin)'라고 불리는 지반의 크고 깊게 함몰된 지역에 있는데, 그 모양은 길이 300 km, 폭 300 km 의 삼각형 모양이다. 대부분의 분지는 호주 남쪽 해안 쪽 바다 아래에 놓여있다. 앞 바다의 석탄층은 대략 5 km (3 마일) 두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라트로브 계곡(Latrobe Valley)의 석탄은 부분 분해된 식물 잔해를 포함해서, 방대한 양의 매우 미세한 식물 잔해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과거에 엄청난 양의 식물의 잔해물이 축적되어, 그러한 거대한 석탄 퇴적을 만든 것이 분명하다.

■ 오염되지 않는 퇴적물

더구나 석탄은 다른 물질에 의해 오염되지도 않았다. 외이오밍 질레트(Gillette)의 파우더 강 분지(Powder River Basin)에서 발견되는 석탄층들은 두께가 45m에서 60m까지의 범위에 이르는데, 이들은 급속한 석탄화 과정을 가리키고 있다. 이들 석탄층들은 매우 두껍고, 다른 물질들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았다. 보통은 석탄층이 두터워지기 전에 점토(clay) 등과 같은 원하지 않는 다른 물질들이 퇴적되어 있다. 이것은 과학자들에게 당혹스런 의문을 갖게 했다. 어떻게 석탄층은 그들이 두꺼워지기 전에 점토나 다른 불순물들의 유입으로 섞여지지 않은 채 대적으로 쌓여질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즉 이 나무 껍데기들은 나무에서 벗겨지자마자 퇴적되어 곧 바로 매몰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석탄에는 큰 나무 가지들이 부러져 일정하지 않은 방향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다. 습지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어떻게 그렇게 큰 나무들이 '그토록 부드러운 유기적인' 토양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뿌리가 물 속에서 숨을 쉴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이러한 큰 나무 가지들은 수천 수만년 동안 늪지에서

천천히 축적되었다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격렬하고 빠른 물에 의한 운송을 가리키고 있다.

■ 석탄의 형성 - 홍수이론

그러면 석탄은 어떤 환경에서 형성될까? 여러가지 자료를 종합하면 가장 설득력있는 환경은 홍수 조건이다. 그것도 오늘날 일어나는 일반적인 홍수가 아닌 노아 홍수와 같은 전 지구적인 대격변을 의미한다. 큰 깊음의 샘들(the fountains of the great deep)이 터지는 조건하에 나무들은 토양액에 의해 뿌리째 뽑히고 물위로 떠올랐을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수목들이 서로 엉겨 붙어 거대한 매트처럼 물 위에 떠다녔을 것이다. 떠 다니던 수 많은 나무 껍데기들은 물에 의해서 느슨해지고 무거워져서 밑으로 가라 앉았고, 이어 몰려오는 저탁류에 의해 갑작스럽게 매몰되었다. 그리고 열과 압력을 받아 오늘날 탄화된 석탄으로 변했을 텐데 이것이 바로 홍수모델이다. 일반적으로 석탄은 여러 퇴적지층들 사이에 끼어서 반복적으로 발견된다. 이는 떠다니던 나무 껍데기들이 아래로 가라앉아 퇴적되어 저탁류에 의해 매몰되고, 또 그 위에 나무 껍데기가 가라 앉아 쌓이고 그 위에 저탁류가 밀려오는 과정이 빠르게 반복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 모델에 의하면 나무와 나무 껍데기의 분리, 해양화석, 커다란 바위, 갑작스런 매몰 등 석탄에서 관찰되는 내용들과 조화를 이룬다.

■ 결론

노아의 홍수의 성경적 묘사는 석탄 형성이 매우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과정(process)과, 필요한 중요 요소(factors)들을 제공하고 있다. 여러 증거들은 석탄화(coalification) 과정은 광대한 기간에 걸쳐 느리게 일어났다고 보다는 오히려 빠르게 일어났음에 틀림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엄청난 양으로 매장된 식물의 존재는 쉽게 설명된다. 그것은 노아의 대홍수로 인한 대격변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대홍수는 홍수이전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였고, 거대한 양의 모래와 진흙으로 그것을 덮어버렸다.

석탄은 전지구적 격변이 있었음을 가리키고 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걸쳐 거대한 양의 식물들이 뿌리가 뽑히고, 이동하여, 엄청난 부피의 퇴적물에 의해 묻혔기 때문이다. 석탄은 노아 홍수의 명백한 기념물이고, 성경의 신뢰성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만나고싶은 사람, 듣고싶은 이야기]



**‘클나무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장
바이올리니스트 은희천 예체능대 학장**

클래식 음악 전도사, 씩어지는 거름이 되어 아름답게 피어난 꽃이 되기까지..

1. 음악적 재능을 어떻게 발견하셨는지?

- 아버지께서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다. 내가 어렸을적, 그 시기에는 한국에 바이올린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아버지께서 일본에서 바이올린을 사다주셨다. 난 음악이 참 좋았다. 바이올린을 하면서 바이올린에 대한 음악적 재능과 끼가 있었기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

2. 글로리아 스트링 오케스트라 창단의 계기는?

- 맨 처음에는 전북에 있는 음악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실내 합주 공부를 할 수 없는 양상불이 없었고, 기회 또한 없었다. 그래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전공을 한 현악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고 양상불을 하는 공부를 시키기 위해 만들었다. 그 모체로 인해 전북지역 음악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글로리아 스트링 오케스트라’를 창단했다.

3. 클나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계기는?

- 초기에는 가칭 전북아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꾸려 연주 활동을 해왔다. 오디션을 거쳐 단원들을 뽑고 이들에게 매월 월급과 연주수당을 지급하며 전문 오케스트라로 발전했다. 현재 34명에게 월급을 주고 있고 16명은 연주 수당을 지급하여 총 60명의 단원이 있다.

‘클나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클래식의 ‘클라’와 뮤직의 ‘뮤’를 뺐는데 한국말로 쉽게 풀면 ‘무럭무럭 자라날 클나무’라는 뜻이다. 즉,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의 현악으로 이루어진 민간 교향악단 오케스트라이다.

전북은 국악으로 유명한 지역이어서 음대출신 중 서양음악을 하는 다른 사람들이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사막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서양음악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자, 지도자를 붙들어주면 지도자 주변으로 서양음

악을 공부하고, 연주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길 것이라 생각했다. 또한 국악과 서양음악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 예술발전을 위한 봉사를 위한 뜻도 있고, 국악만 알려진 이 지역에 서양음악이라는 예술문화를 알리고자 클나무 오케스트라를 창단했다.

4. 교수님께서 직접 바이올린 독주회를 하셨는데..

- 재작년 11월 17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를 했다. 사실, 63세의 독주를 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은 비웃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대학교수가 연주를 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의미를 두고 있다. 실기를 지도하는 교수가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본보기가 되어 음악에 대해 자극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물론 다른 교수들도 공부를 하고 있겠지만, 학생들에게 전공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직접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독주회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해야 하는 의무감도 있었지만, 내가 즐길 수 있어야 듣는 사람도 즐길 수 있기에 독주회를 즐기면서 한 것 같다.

5. 외부활동이 다양하시던데..

- 물론, ‘클나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단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오케스트라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외에도 전공이 아닌 아마추어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연주를 하는 ‘하나임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을 맡고 있다.

베짱이 바이올린을 쏘꾸는 초, 중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완주군 명품 음악교실’도 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완주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바이올린 강습을 하고, 여름·겨울방학에는 집중 캠프를 한 뒤 학부모와 함께 명품음악교실 연주발표회를 할 계획이다.

또한 매주 금요일에 ‘클래식 산책’도 하고

있다. 클래식에 관심 있는 50명의 사람들이 클래식의 일화 배경 등의 설명과 함께 음악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6. 교수님께 ‘음악’이란?

- 나를 전북의 ‘클래식 전도사’라는 명칭을 달게 해주고 그 역할을 하게 해준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음악은 나를 바이올린과 클래식이라는 한 길로 꾸준히 갈 수 있게 도와줬다. 즉, 내가 가고 있는 길밖에 모르고, 주변의 다른 길을 쳐다볼 수가 없게 해줬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특별하고 힘든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나에게도 음악을 하면서 자기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고 캄캄해 정체가 온적도 있다. 어떤 일을 하든간에 정체는 오기 마련이지만,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연주할 곡에 대해서 기계처럼 만 번정도 계속 꾸준히 반복하고 연습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서 끈기와 인내를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7. 앞으로의 비전은?

-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려면 냄새나고 더러운 거름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썩어지는 거름이 되어 내 거름을 받아 아름답게 피는 꽃이 많았으면 좋겠다.

세계소리 축제가 전주에서 하는 것처럼 전북은 삭막하고 척박한 국악 터전속이고, 열악한 클래식의 대중화는 물론 점차적으로 서양음악이 식어가고 있다. 세계소리 축제에 가면 국악을 하는 사람들이 ‘양악(서양음악)하시는 분이 여기는 왜오셨대?’라며 비웃지만, 그 속에서도 클래식을 알려 서양음악이 국악과 함께 병행하며 성장했으면 좋겠다. 또한 클래식 음악의 활성화를 위해 내가 기초가 되어 문화발전에 큰 공여를 해서 좋은 환경과 터전을 만들고 싶다.

8. 올해의 목표는?

- 나의 목표는 ‘클나무 필하모닉 오케스

트라’에 중심을 둔다. 클나무 오케스트라는 한달에 2번 정도 전북에 있는 주변지역에 연주 활동을 하기 때문인지 우리 전북을 대표하는 민간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클나무 오케스트라는 다음달 14일에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서양악기로 연주하는 국악의 음악’이라는 주제로 연주회를 연다. 그리고 6월에는 영화에서 나오는 배경음악, OST 음악을 연주하고, 7월에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과 함께 협연을 한다. 8월에는 학생들을 위한 재미나는 음악 수업을 하고, 9월에는 신인 음악회를 열며, 10월에는 성악가들 콘서트를 할 계획이다. 그리고 추후 계속 활발한 연주공연을 할 것이다.

9. 음악학과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말?

- 우리 음악학과 학생들의 음악수준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준과 많은 차이가 난다. 하지만,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다. 서울에 다니는 학생들이 잠잘 때 우리는 피를 흘리면서까지 연습하려는 그런 자세로 연습하면 된다. 즉, 다른 학생들이 1시간 연습하면 3~4시간을 연습하는 것이다. 그 속에 살아남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 음악학과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권희망 기자)



■ 국제교육교류원

세계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국제화의 산실



국제교육교류원은 학우들이 국제 교육/지식, 문화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국제교류에 inbound, outbound가 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학생은 어학연수생과, 학부생·석·박사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입학한다. 국제교육교류원에서는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교류와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또한 우리대학 학우들이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외국에 나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거기에는 단기와 장기로 나뉜다.

지금 우리학교는 각 국의 나라들과 협약을 맺고 있다. 그 협약을 통해서, 학생을 교환/파견하며 파견된 우리대학 학우들은 폭 넓은 경험과 외국어 향상에 도움이 된다.

세계로 뻗어 나가려면, 외국어 공부는 필수적이다. 국제교육센터는 재학생 뿐 아니라 전라북도 지역주민들의 국제 교육을 제공한다. 학우들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특강을 개설해 세계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많은 학우들이 외국어 공부를 위해 학원을 다닌다.

국제교육센터에서는 가급적 좋은 강사와 수업을 개설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한다. 유명한 외부 강사를 초빙하고, 모의토의를 통해 영어 성적을 확인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오는 14일 유수연 강사 토익특강 안내가 있다. 또한 14일까지 중국어 무료특강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런 기회를 통해 국제 교육교류원은 학우들의 외국어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을 위해 한국어 문화센터가 있다.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배우게 하는 곳이다. 한국어능력시험특강을 진행하며, 유학생을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국제교육교류원(원장 고봉성)은 "다문화시대인 지금 외국인 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은 중요하다"며 외국유학생과 멘토링 체제를 만들어 교류의 활성화를 이루어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온지 7개월 된 교호(중국 어학연수생)는 "생활하는 것이 재밌지만, 어학연수생이라 한국 친구를 사귀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기자는 외국유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려는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우리대학을 찾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찾을 것이다. 총학생회에서 우리대학 학우들과 외국유학생의 상호협력 관계 형성에 힘쓰는 일을 해주었으면 한다. 그로 인해 남들보다 한 걸음 먼저 뛰는 우리학우들이 될 것이라 믿는다.

/박선화 기자

동아리

〈사진동아리〉 호룡은 "빛으로 만든 그림"이다.



지난 9일 사진동아리 '호룡'은 전주동물원으로 출사를 다녀왔다. 흔히 사진은 그 순간의 추억을 셔터를 통해 남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전주동물원으로 출사를 다녀온 호룡인들 마음속 또 하나의 추억의 셔터를 누른다.

사진동아리 호룡은 사진학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흑백필름을 원칙으로 한다. 찍은 사진은 동아리 방에서 직접 현상·인화를 통해 사진에 대해 알아간다."며 동아리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회장 차정아(한식조리학 2)는 "호룡은 31년된 동아리이다. 우리는 찍고 인화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진다. 또한 우리는 매년 정기전시회 때 자기이름을 걸고 찍은 사진을 선보인다."고 말했다.

/박선화 기자

- ◆ 동아리명 : 호룡
- ◆ 위치 : 학생회관 5층529호
- ◆ 연락처 : 차정아회장 010-4003-4927

게릴라 인터뷰



게릴라 인터뷰는 다양한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함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Q.'봄'하면 하고 싶은 것이나 생각나는 것은??

- 여행가고 싶다. 여행을 통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 새롭게 시작하고 싶기 때문이다.
- 고은정(관광경영전공 4)
- 봄하면 꽃!! 따뜻하게 비추는 햇빛과 막 잠에 깨어나 활짝 핀 아름다운 꽃이 생각난다.
- 김솔라(사회복지학 2)
- 겨울동안 추위 움츠리고 있던 몸을 건강과 공부를 위해 관리하고 싶다. 체벌규(3)
- 한자 급수 공부. 아직 못한 급수 자격증을 다 따고 싶다. 유슬기(한문교육 2)
- 벚꽃 나무아래에서 독서를하다가 잠이 드는것.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삶을 살고 싶다. 위하라(호텔경영 2)
- 선,후배 친구들과 야유회를 가고 싶다. 따스한 햇살과 봄향기를 통해 평안을 회복하고 싶다. 양중원(토목환경공학과 3)

※ 기타의견

- 원피스 입고 싶다. 샤랄라한 원피스를 입고 따뜻한 햇살을 받고 싶다. 익명(대체요법전공 3)
- 봄나들이. 대학의 자유를 만끽하며... 익명(금융보험학 2)
- 평화관 벚꽃벤치에 앉아 CC커플의 행복을 맘껏 느끼고 싶다. 익명(법학과 1)

* 소개를 원하시는 동아리와 게릴라 인터뷰 질문이 떠오른 분은 전주대신문사 클럽(http://jjnews.cyworld.com)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스도쿠 풀어보기

★규칙★

1. 아홉 개의 3×3 칸에 숫자가 1부터 9까지 하나씩만 들어야 한다.
2. 아홉 가로줄에 숫자가 1부터 9까지 하나씩만 들어가야 한다.
3. 아홉 세로줄에 숫자가 1부터 9까지 하나씩만 들어가야 한다.

* 정답자에게는 선착순(전공별 1명)으로 6명을 선발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내실곳 : jjnews@jj.ac.kr (이름, 전공, 학년, 연락처를 기재해주세요)
연락처: 권희망기자(010-3424-0804)

774호

	7		6		9	
6			7	4		5
	8		4		9	6
5						2
	3		7			8
7			9			8
	9		4			3

773호 정답

9	8	1	5	7	4	3	2	6
5	6	3	8	2	9	1	4	7
4	7	2	3	1	6	8	9	5
7	3	5	1	6	2	9	8	4
1	2	9	4	5	8	6	7	3
6	4	8	9	3	7	5	1	2
2	9	7	6	8	3	4	5	1
8	1	6	2	4	5	9	3	9
3	5	4	7	9	1	2	6	8

★ 773호 당첨자 ★

- 이은지(상담학 4) 김미혜(사회복지학 4)
- 박인선(대체요법전공 3) 양민정(패션산업학 2)
- 김현숙(가정교육 4) 김범수(생활체육전공 2)



서리가 알곡을 만든다!



윤마병 교수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한창입니다. 연구동 북쪽 그늘의 산수유 나무에도 노란 꽃이 만발했습니다. 천잠 호수 곁에서 여유롭던 느티나무에도 파란 새싹이 가득합니다. 유난히 길고 추웠던 지난 겨울이 벌써 아득한 옛일이 되었습니다. 새내기 교수로서 처음 맞이하는 우리학교의 봄은 아름다운 봄을 넘어 황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 3월말에 너무나 슬프고 마음까지 맺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년 전 과학고에서 담임이었던 제자가 목숨을 버리는 비통한 일을 겪었습니다. KAIST에서도 이번 학기에 4명이나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 옵니다. 풍요로운 시대,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요즘 상담을 하면서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 숨도 지지 못했다는 학생, 혼자 있기가 외롭고 우울해서 고통스럽다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우울하고, 고독하고, 평안하지 못할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파장 영역을 더욱 넓혀야 합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m 보다 더 짧은 파장으로부터 1m가 넘는 파장까지 넓은 범위의 전자기파를 모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눈은 태양의 그 넓은 파장(월드컵 운동장 크기) 영역에서 바늘구멍보다도 더 작은 가시광선(0.4~0.7μm)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좁디 좁은 가시광선의

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좁은 시야에서는 나만 힘들고, 나만 외롭고 내일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들의 시야를 넓혀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는 유복자로서 그 어머니가 목숨을 잃을 뻔한 난산의 고통 속에서 어렵게 태어났습니다(역대상 4장). 굶어 죽을 지경의 가난과 아버지가 없는 고통으로 자랐지만, 야베스는 이러한 서리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고, 지경을 넓혀주셔서 환란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가난과 고통의 서리는 오히려 그를 부요의 알곡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국 야베스는 한 도시의 이름으로까지 남게 되는 수퍼스타가 되었습니다(역대상 2:55). 야베스를 닮아가는 여러분! 연단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요히 앉아 본 뒤에야 평상시의 마음이 경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침묵을 지

킨 뒤에야 지난 날의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드릴 때, 여러분의 대학생활은 혼돈과 고통에서 벗어나 참다운 평안과 행복이 찾아 올 수 있습니다.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서 세상의 잡음 소리를 더 이상 듣지 말고, 영원한 진리의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광에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전주대학교에서 화요일 아침과 수요일 점심 기도회를 통해 학생들과 우리학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학교교회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만나고, 비전과 섬김, 도전과 나눔을 위해 기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들에게 직면한 서리들이 오히려 알곡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염려하고, 방황하며 뒷간에서 헤매지 마시라. 야베스와 같이 연단과 기도를 통해 참 평안과 승리를 얻으시라. 서리가 알곡을 만든다는 산증인이 되어 세상에 우리를 소리칩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이에 반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내가 남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남편을 변화시키겠다', '아내를 변화시키겠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며 여기에 매달린다. 한평생 여기에 집착하다가 허망한 죽음을 맞는다.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요, 우둔한 사람이다.

▼ 문제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고 주위환경을 보며 남을 탓하는 것이다. 온전한 변화는 예수를 만날 때 시작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5:24).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신분의 변화가 이뤄진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신분이 바뀐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행 26:18).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신분이 바뀌면 가치관이 바뀐다. 인생이 변화된다. 예수를 믿으니 심령이 새롭게 되어(엡 4:23)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롬 12:2).

▼ 예수를 믿음으로 신분이 바뀐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드리는 간증이다. '문제는 바로 내가 바뀌지 않음에 있음...'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자신을 들여다보며 고백한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딤후1:13). "우리의 결사량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후 4:16). 아멘.

/장선철 처장(선교지원처)

진리의 샘

“먼저 (마태복음 6: 33)



신정호목사
(전주동신교회 담임)

히브리 사고방식과 헬라 사고방식의 차이는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이방사람의 대표자로 헬라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같은 한 가지 물건을 보면서도 사고방식에 따라 전혀 각도가 달라집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왜"라고 묻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거나 보거나 항상 "왜"라는 말로 묻고, 헬라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라는 말로 묻습니다. 그러면 "왜"와 "어떻게"가 무엇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왜 먹어야 되고, 왜 살아야 되고, 왜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왜 장가를 가야 되느냐 하는 그 "왜"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까닭과 목적을 묻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까닭과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목적으로 일하고 먹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왜"라고 할 때

그 원인이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라고 묻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떻게"라는 말은 방법을 말합니다. 일을 할 이유와 목적은 그 다음이고 일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을 항상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학적인 면이나 과학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과학이나 철학은 어떤 목적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종교가 발전을 했고, 헬라 사람들에게는 철학과 과학이 발전을 합니다. 천국의 일꾼은 우리가 왜 천국의 일꾼이며, 왜 천국을 위해서 일해야 되느냐 하는 목적과 까닭을 묻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나보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내 힘으로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움켜잡은 것 같지만 늘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수고하여 뭔가 이룬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아보면 언제나 모자라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짊어주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 모자라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에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우선적으로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반드시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의 하나는 "먼저"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 1회 전주대학교 전국 중·고등학생 예배예술 축제

본교 선교지원처(처장 장선철)에서는 전북CBS와 공동으로 제1회 전주대학교 전국 중·고등학생 예배예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본 행사는 기존의 복음성가(CCM) 대회의 개념을 떠나 보컬과 악기, 그리고 댄스를 포함한 찬양의 전반적 요소를 갖춘

예배예술로서 다양한 분야의 경연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분야별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아울러 대상은 본교 입학 시 4년간 등록금 면제 등 다양한 수혜 혜택이 있다.

1. 참가대상 : 전국 중·고등학생
2. 참가분야 및 요강

분야	곡	시간	비고
Keyboard	자유곡 (창작곡 또는 기성곡)	3~5분 이내	Solo 참가 (2명 이상은 모두 팀양상으로 참가)
Vocal			
Guitar			
Bass			
Drum			
Worship Dance			
Team Ensemble			팀별 시상

3. 접수기간 : 2011년 3월 21일(월)~2011년 4월 20일(수)

[전주대학교 선교지원처 홈페이지(mission.jj.ac.kr)를 통해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kht9714@gmail.com)로 접수]

구분	날짜	시간	장소
예선	2011. 05. 04	11:00	JJ아트홀
본선	2011. 05. 04	16:00	JJ아트홀
시상식	2011. 05. 12	14:00	스타센터 온누리홀

4. 문의 : 전주대학교 선교지원처
(☎063)220-2699/2130, mission.jj.ac.kr



녹색지구를 지켜라

(너무나 당연한 우리들의 외침_Save Green)



학생생활관(관장 장선철)에서는 지난 4월 5일 1회차 Save Green 점호를 실시했다. 이번 Save Green점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콘센트 뽑기'를 실천 주제로 정하고 관실에 꽃혀있는 플러그 수를 점검했다. 또한 각 생활관 1층에 Save Green Point를 게시하여 증빙료에

너지 절약 정도를 비교해 볼 수 있게 하였다. 생활관에서는 매달 5,15,25일을 에너지절약 day로 지정하여, 에너지절약 5가지 실천항목을 관생들이 실천한다. 앞으로 에어컨(여름철 26℃) 및 보일러(겨울철 20℃) 온도 설정하기, 사용하지 않는 전등 소등하기, 컴퓨터 절전모드 설정하기, 문어발식 멀티콘센트 사용하지 않기의 실천사항으로 Save Green점호를 진행할 예정이다. 에너지 절약 실천 우수관생들은 에너지 절약관련 다양한 상품이 지급이 될 예정이다. 학생생활관에선 앞으로도 관생참여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강화하여 에코 생활관 구축에 힘을 것이다.

함께 만들어 나눠 먹는 쿠키 만들기 시간

학생생활관(관장 장선철)은 4월 6일 19시 스타타워 3층 VIP 식당에서 쿠키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6명의 관생들이 참여하여 이번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 모양과 알록달록한 색으로 개성 넘치는 쿠키들이 만들어졌다. 서툰 솜씨로 만들어진 쿠키를 룸메이트, 친구들과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생활관에서는 앞으로도 케익



만들기, 리본아트, 명사초대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생활관 관생자치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총 24명, 대표 강성현(경찰행정 3년)학우

학생생활관(관장 장선철)은 4월 4일(월) 오후 6시 스타타워 세미나실에서 20명의 관생 자치위원회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생활관 관생자치위원회(이하 자치회)는 스타타워 층장 13명, 스타빌홀

층장 11명, 총 24명으로 구성되었다. 자치회는 점호활동, 관생들의 건의사항 및 불편사항을 취합하여 생활관과 네트워크 형성 강화의 역할을 수행하며, 생활관생을 대표하여 오픈하우스 등 참여행사를 진행하게 된다.

2011년 1학기 학생생활관 관생자치위원회 명단

- 대표 : 강성현(스타빌)
- 총장(스타타워) : 곽수진, 박지훈, 박성현, 안재진, 원상연, 제미연, 이설희, 송향재, 곽소현, 강태환, 주은수, 황유진, 오다희
- 총장(스타빌) : 윤민지, 정하나, 강경혜, 조연희, 강성현, 김정민, 노정용
- 총장(스타홀) : 강한빛, 지영은, 전해돈, 김효원

스타센터 개관 기념 "천국 슈퍼스타를 꿈꾸다"

전주대학교&극동방송 "함께하는 콘서트"

선교지원처(처장 장선철)에서는 5월 3일 오후 7시 본교 JJ아트홀에서 "천국 슈퍼스타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콘서트를 갖는다. 본교와 극동방송이 공동으

로 주최하는 본 콘서트는 스타센터 개관을 축하하며 기독교 청년들에게 찬양의 은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콘서트는 김혜민PD(극동방송)와 장혁재

교수(소리엘)가 진행을, 천관웅 목사(나이름아시조 외)와 지역(그리스도의 계절 외)이 게스트로 참여해 무대를 더욱 빛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주대, CBS & 월드비전과 협약

본교 선교지원처(처장 장선철)는 전북CBS, 월드비전 전북지회와 지난 7일 선교협약식을 맺고 향후 활발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본교와 전북CBS, 월드비전 전북지회는 지구촌 모든 어린이들에게 풍성한 삶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한가정 한생명 살리기 캠페인"에

참여 및 후원을 약속했으며, 캠페인의 프로그램으로 해외사업장 방문, 글로벌 사랑나누기, 기아체험 24시간 열린 캠프, 세계시민교육 아카데미 운영, 글로벌 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협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종료 1개월 전까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하였다.

기독교동아리 및 선교단체 간담회

기독교 동아리 및 선교단체 간담회 간담회가 지난 7일 스타타워 VIP식당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난주간 특별세례기도회와 수요성경대학 등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성프로그램에 선교단체와 동아리들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등이 논의 되었다.

대학교회 임직감사예배

대학교회에서는 지난 4월 3일 오후 5시에 임직감사예배를 통해 새로운 임직자를 세웠다. 예배와 임직식은 라준석 목사(온누리교회 수석부목사)의 설교, 임직 안수, 이남식 장로(총장)의 권면의 말씀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선교동정 | 장선철 처장 특강

- 04. 05(화) 전주시민강좌
- 04. 08(금) 서울 중문교회
- 04. 15(금) 정읍 북초등학교 부모교육

대학교회 예배시간

- 새벽예배 월~금 06:00
- 주일낮예배 주일 11:00
- 대학청년부 주일 13:30
- 수요일예배 수요일 19:00



我校与NASA OMEGA项目执行委员长托马斯·科林博士在共同研发OMEGA化妆品的意向达成协议。

我校与世界气候变化综合状况室签署谅解备忘录

- 促进OMEGA化妆品的研究和共同开发 -

我校上月31日在STAR中心楼会议室与美国The OMEGA Global Alliance (NASA法人机构/Dr. Kathryn A.J (世界气候变化综合状况室/ CEO 朴英叔) 签署了谅解备忘录。此次协议是在NASA OMEGA

项目执行委员长托马斯·科林博士应世界气候变化综合状况室的邀请访问韩国的行程中促成并最终签署。协议涉及提升化妆品构成物质“OMEGA”的活用价值。以及3家机构合作共同致力于OMEGA化妆品的研究与开发等内容。托马斯·

科林博士是克林顿财团中曾经负责通过Twitter, Facebook等网络媒介向青少年宣传克林顿政府气候能源政策的组长。现在美国设立了OMEGA联合会韩国处并计划通过奖学金等形式献身于社会贡献。 /朴善花 记者

全州大第38届大韩民国总学生会起航式

- 在广大同学的积极关心与参与中自信展望 -



在起航仪式上参加演出的跆拳道示范团

上月30日下午1时, “第38届大韩民国总学生会”起航仪式在学馆希望馆中顺利举行。仪式上, 总学生会公布并阐述了口号, 目标, 特征以及各团队的组织结构及人员介绍。最后, 仪式在邀请歌手 ‘Miss S’ 和跆拳道示范团, 手语之爱等实力社团表演中圆满结束。朴仲会长说, “为建设更出色的大学, 全校师生应团结一心, 在细微的变化中早求机遇。本届总学生会将时刻铭记广大同学的心声与期盼, 以饱满的热情和挑战精神履行使命。” /金允龙 记者

本次活动以“更出色的大学, 邀请歌手 ‘Miss S’ 和第一站”为主题, 由马助威团, 跆拳道示范团, 手语之爱等实力社团表演中圆满结束。朴仲会长说, “为建设更出色的大学, 全校师生应团结一心, 在细微的变化中早求机遇。本届总学生会将时刻铭记广大同学的心声与期盼, 以饱满的热情和挑战精神履行使命。” /金允龙 记者



参加大德特区探访活动的同学们

本月8日下午, 我们中国留学生一行90余人, 在经营学部诸贤教授和生爱支援处李明淑课长的带领下, 来到位于大田广域市的大德研究开发特

区进行文化探访活动, 大德特区占地70.4km², 区内辖32个法定洞, 是韩国最大的科技研发基地。我们对大德特区慕名已久, 早已听说它是集政府研究所, 民间研究所, 企业和教育机构

为一体, 科技知识和经验共享并驾齐驱的创新开发集群。这次终于有机会可以领略它的魅力了。柔和的阳光懒洋洋的洒在我们身上, 充满睡意的午后巴士上, 却活跃

畅享文化体验 领略科技魅力

- 记中国留学生大德特区之旅

(柴世民, 经营学部 4年级)

着一张张精神的面孔。1个半小时的车程后, 我们来到了位于大德特区的韩医学研究院。这是一所以韩医学、韩方医疗及韩药产业的培育和课题发展为研究对象, 为致力于提高国民健康水平而设立的韩医学领域的国家级核心研究机构。尖端的安全设施, 宽敞空阔的走廊过道, 无不彰显着科技的严谨气氛。通过接待人员的演示, 我们了解到韩医学研究院作为韩国传统医学的权威研发机构, 正在透过韩医学的科学化, 标准化, 世界化, 开发以韩医学为基础的世界一流的融合型本源技术。同我们的中医学一样, 高速创新发展中的韩医学, 也在为患者最大限度的减轻病痛而努力。

尖端科技之外带给我们的视觉体验: 整洁的马路上没有熙攘的人群, 代替喧嚣的市声影像的, 是道路两旁绵延不绝的一簇簇研究所, 错落有致的草坪, 俨然像一片片绿叶, 衬托着研究所的累累硕果! 在研究所里我们看到, 平时生活中极为普通且容易被忽视的小物件, 经过简单的组装后产生了奇特的视觉效果。我们在参观中感受到了人类科技文明伟大的发展历程, 而这里将科技的亲和力展现无余。让我们在轻松的气氛里惬意的领略了它的魅力!

结束了对韩医学研究院的行程, 我们踏上了去往科学研究院的行程。一路上, 我们再次感受到大德特区在

半天时间的文化探访活动, 让我们无不感慨: 这样一个人口少资源少的国家却对世界科技的进步做着如此巨大的贡献。积极进取的态度, 团结协作的精神, 必将使韩国在激烈的国际竞争中走的更加稳健!

特别关注

中国留学生举办新老生恳谈会

- 30名前后辈之间的温馨聚会 -

我校30名中国留学生于1日晚在位于学校附近的韩国料理店“家”举办了一场温馨的新老生恳谈会。

此次恳谈会, 为了促成前后辈留学生之间的相互交流, 解决新生在学习, 生活等领域的诸多疑惑与

困难, 主办单位-外国人留学生会特意邀请了多名在读中国人研究生作为前辈代表, 针对我校的学分制度以及在韩国的学习, 生活, 安全等各个方面对新生们进行了指导。外国人留学生会会长侯一飞同学(经营管理4)表示, “随着我校中国留学生人数的不断增加, 在

课程选修, 学分获取以及日常生活与安全方面的问题日益凸显。我们举办这次恳谈会的目的正是为了帮助新生们杜绝这些问题的发生, 更好更快地适应韩国的留学生活”。新生刘念同学在被采访时说到, “我刚来韩国还不到一个月, 对这里感到既陌生又棘手, 通过这次恳谈会认识了很多前辈, 在学习和生活上也得到了不少指导, 希望以后能有更多的机会参加这样的活动”。 /权希望 记者



MOU agreement with the OMEGA Global Alliance and Global Climate Change Situation Room

Research and joint development for omega cosmetic products



Dr Thomas Grim of NASA OMEGA Project and Jeonju University will develop Omega cosmetic products together.

of NASA OMEGA, took place at the invitation of GCCSR. The agreement is to upgrade the value of 'omega' for use in cosmetic products with three organizations cooperating on research and development.

Dr. Grim, the chief of Climate Energy Policy in the Clinton administration, uses social networking sites like twitter and facebook to promote the climate energy policy to teenagers in the Clinton Foundation. Today, he is trying to establish OMEGA United Korea in America using social contributions and endowing scholarship funds.

Jeonju University made a MOU agreement with The OMEGA Global Alliance (NASA cooperative / Dr. Kathrym A.) and Global Climate

Change Situation Room (CEO Pak Young Sook) at a meeting in Star Centre on March 31st.

This meeting with Dr. Thoman Grim, the director

Outstanding performance in National University Taekwondo Competition



The students of the Taekwondo Department take a photo with professors after winning the competition.

The students from the Taekwondo Department (Head of Department, Choi Gwang Geun) achieved outstanding results in the 38th National University Taekwondo competition in individual categories. This event was held in Younggwang Sportium in Jeonnam from March 28th to 30th. In the technique category, men's individual division, Kim Jae Min (sophomore) and Won

Jong S대 (freshman) received first place, and in the group competition Joo Hyun Ha (junior), Song Kyung Jin (freshman) and Choi Hyun Geun (freshman) received second place. Professor Choi Gwang Geun said "We will train harder and adopt more techniques for better results in future competitions. The effort and passion of our current students will eventually meet

the goal of a top ranking.'

In addition, this competition included the 3rd Taekwondo Pumsae competition. In the individual women's category, our student Jan Myung Jin (senior) won first prize. Jang Myung Jin said, 'I haven't learned pumsae that long, but I'm happy with my results and I want to learn more from Jeonju University.'

Bible Devotion

Let's Serve the Lord!

Brian Heldenbrand

Ephesians 6:7-8 Serve wholeheartedly, as if you were serving the Lord, not men, because you know that the Lord will reward everyone for whatever good he does, whether he is slave or free.

1 Corinthians 3:18-21 Do not deceive yourselves. If any one of you thinks he is wise by the standards of this age, he should become a "fool" so that he may become wise. For the wisdom of this world is foolishness in God's sight. As it is written: "He catches the wise in their craftiness" and again, "The Lord knows that the thoughts of the wise are futile." 21 So then, no more boasting about men!

These two passages of Scripture remind us that men are not to be the source of life and the person(s) we serve. For those who work in

Jeonju University, this institution provides an excellent job for many faculty and staff and supports many workers financially. Professors offer excellent information to students to enable them to become professionals within their fields. Both the university and the educators within their fields are important elements in our lives, but the wisdom of God is a better choice. God's word tells us to keep our boasting away from men, but to keep it on the one whom we are to serve and who adequately rewards everyone for whatever good he or she does. Let's remember that we are to serve the Lord and NOT man. Yes, He is faithful to reward the righteous.

2011 The 3rd X-ctrc Culture-Technique Seminar

The third X-ctrc Culture Technique Seminar took place in the Smart Space of Joint Research Centre of Culture and Technique on April 7th. This seminar was organized by professor Yoo Dong Hwan (Andong University). The objective was to understand the use of traditional culture, not

only preserve it, but to find ways of connecting method with high technology.

This seminar will be held every Thursday from March 24th to June 9th.

*For further information, check the Jeonju University website or call Park Young Hui (220-2945)

The First Moonlight Festival by Department of Culture and Tourism

You and Me Searching for Us

The Culture and Tourism Department held 'The First Moonlight Festival' on April 1st from 2 pm around Creative Hall.

This festival was held to unite the members of the Culture and Tourism Department, and the programs included a Jokgu competition with professors, a treasure hunt, a 4-line poetry writing competition with starting words "mun hwa gwan

gwang", a Dol+I contest, a search for my other half contest and Sexy Queen contests.

The student president, Lee Ji Soo explained "we hope this festival gives a chance for all faculty, staff, and students to unite. To encourage more participation by students, we prepared a variety of programs and to start our healthy and productive university life."

스타센터

스타센터

The Place for Superstars

JEONJU UNIVERSITY



더 멋진
2011 대학
더 멋진 세상을 꿈꾸는



Central Library

Computer Center

Food Court

Convention Center

Star Center(스타센터)는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유비쿼터스도서관, 국제회의장, 전시장, 학생서비스센터, 정보통신원, 컨벤션센터, 교양강의, 어린이영어도서관, 푸드코트 카페 등이 입주하는 첨단 디지털 교육 기지채를 갖춘 유비쿼터스 빌딩으로, 설계는 홍콩의 건축가 Aaron Tan이 설계했으며, 세련된조형미,독창적이고 역동적인 공간 디자인은 전주대학교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전주대학교

